

# 정치권 '뇌관' 현인택·김석기 공방 예고

2월 정국이 본격화되는 이번주 정치권에 한바탕 회오리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의 뇌관이 될만한 인사청문회와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가 이번주에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의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변칙증여 의혹과 논문 중복게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현 내정자에 대해 파상공격을 펼칠 계획이다.

또 검찰의 용산사고 수사 발표(9일) 후 야당은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10일)와 긴급현안질의(11일)를 통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의 거취를 포함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파상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일단 인사청문회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되는 현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경색된

## 이번주 인사청문회·용산참사 수사 발표

## 여야, 변칙증여·용산 책임론 놓고 격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현 내정자의 비전 등 정책적 역량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현 내정자에 대한 회의론이 조급하게 고개를 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은 또 용산 참사의 여진이 미칠 원 내정자의 경우 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음을 알림으로써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 방침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용산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9일로 예정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인택, 원세훈 내정자 모두 도덕성과 전문성 등에서 부적격하다고 보고 파상공세를 펼칠 태세다.

특히 현 내정자와 관련, 민주당은 논문 중복 게재, 변칙 증여, 국민연금 미납 등 지금까지 쏟아진 의혹만으로도 이미 '자격미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8일 현 내정자가 BK21(두뇌한국21) 사업 신청시 논문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당하게 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대 교수인 현 내정자는 2006년 2월 4명의 교수와 함께 '제2단계 BK21사업'에 신청해 지금까지 3억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중간평가 결과 연구사업단으로 승격돼 2012년까지 20억 원을 추가지원받을 예정"이라며 "당시 현 후보자가 신

청한 18건의 연구실적 중 자기표절 1건, 허위등록 2건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온 '비핵해방 3000'의 입안자라는 점에서 통일부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현 내정자가 대통령직 인수 시절 '통일부 폐지론'을 밝혔던지를 따지기 위해 이경숙 전 인수위 원장과 홍두승 전 인수위 통일외교부 과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원 내정자의 경우 민주당은 그가 용산사고 책임자라는 이유로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원 내정자가 30여 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보낸 만큼 '정보 분야 수장'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점도 제기할 것이며, 원 내정자 아들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도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의 용산사고 수사결과 발표가 진상규명에 미흡할 경우 편파 수사로 규정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丁-鄭 충돌 움직임

(세균) (동영)

## 정동영 재선거 출마 싸고 신·구 주류 갈등 표면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4·29 재선거 출마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의 신·구 주류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세균 대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일부 386 그룹이 사실상 당내 주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당내 최대 계파를 확보했던 정 전 장관 측과 비주류가 연합군을 형성해 양측이 충돌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 대표와 정 전 장관이 둘 다 전북 출신으로, 정 전 장관의 복귀 시 전북의 맹주들은 물론 향후 대권 도전을 놓고도 치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당내 주류측은 정 전 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에 부정적인 입

장을 연일 밝히고 있다.

공격적인 비난은 삼가고 있지만 각종 경로를 통해 정 전 대표의 전주 덕진 출마는 민주당을 과거로 후퇴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정 대표 측근 인사는 "정 전 장관 측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정 전 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는 당장 재보선 구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민주당과 정 전 장관에게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9일 전북 의원들과 만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부 비주류 인사들과의 물밑 접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미국에 체류중인 정 전 장관이 금명간 출마 여부를 결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나 당이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3월초로 늦추는 데 따라 결심 시기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전 장관 측 인사들과 비주류 측은 정세균 대표 등 주류 측 인사들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관리형인 정세균 대표가 정치적으로 '오버'하고 있으며 386 그룹들도 당내 권력에 쪼여 기득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정 전 장관의 출마설을 계기로 그동안 잠복해있던 신·구 주류간의 갈등이 이미 표면화된 상태라든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미경 사무총장이 "정 전 장관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혀 양측간 물밑 조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8일 오후 대구 동성로 2·28기념공원에서 열린 '폭력살인 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 홍보 캠페인에서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당직자들과 대구사회원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대구·부산서 'MB악법' 저지 대회

### 11일 광주서 집회일정 밝혀

민주당은 주말과 휴일인 7~8일 부산과 대구 등에서 '용산 폭력살인 진압 규탄과 MB 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잇따라 가지며 대국민 여론전을 계속했다.

정세균 대표와 안희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오후 대구 노보텔에서 지역 사회원로 20여명과 간담회 및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용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대통령

의 사과를 촉구하고 'MB악법' 저지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용산 참사'와 관련,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잘못된 정권이 때문에 국정감사든 특검이든 모든 가능한 방안을 도입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MB악법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수십건의 법을 일방적으로 숫자에 의해 밀어붙여려고 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언론, 시민단체와 힘을 모으고 있다"며 "특히 언론 관계법에 대해서는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회원로와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거리로 나가 '폭력살인 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에 앞선 7일 부산과 김해 등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광주시의 야당과 '민생민주광주전남회의'는 오는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악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방향과 집회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뇌졸중 입원 JP

## 이달 중하순 퇴원

지난해말 초기 뇌졸중 증세로 입원해 병원 치료를 받은 김중필(JP) 전 자민련 총재가 이달 중하순에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김 전 총재측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총재가 오는 14일로 임원선거 무달께가 된다"며 "몸상태가 많이 호전됐기 때문에 2월 중하순에 퇴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총재의 몸 상태는 활동하기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는 퇴원에 앞서 내주 병원측의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정확한 퇴원 날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재는 이후 서울 청구동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필요시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 4월 재보선 '거물'들 복귀전?

## 박희태·강재섭·정동영·한광옥 출마설 솔솔

4·29 재보선에 대한 공천작업이 이달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18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여야 원의 거물들의 움직임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원내 입성을 노리는 여야 거물들이 모두 출마를 확정할 경우 4월 재선거는 거물들의 복귀전 성격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 부평을 등 수도권에서는 여야 거물들의 맞대결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경우 6선 고지를 노리는 박희태 대표의 행보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박 대표가 이번 재선거를 계기로 '원외'란 꼬리표를 떼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여권 전체가 안정된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명예회복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대표 주변에선 인천 부평을이 출마후보지로 자주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선거법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경남 양산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는 또 전직 대표인 강재섭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거리다.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뒤 '야인(野人)'으로 지냈던 강 전 대표는 10일 당내 중도성향 및 친이계 의원 36명과 함께 연구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4월 재보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의도 복귀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경북 경주와 인천 부평을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정동영 전 통일부 장

관,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출마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출마를 강권하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는 출마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민주당에 복당한 전 대표는 4월 재선거를 통해 정계복귀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 출신인 한 전 대표가 노리는 지역구는 전주 완산갑. 하지만 당내의 견제세력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선 후보였던 정 전 장관 역시 전주 덕진출마와 인천 부평을 출마가 거론되고 있지만 당내외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열린우리당 시절 재야파의 수장이었던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4월 재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2010학년도 대수능 재수 정규종합반 모집

수능 최우수 드림팀 강사진 / 셔틀버스 운행 / 저녁 11:20분까지 의무 자율학습(일요일은 격주로 의무 자율학습) / 철저한 성적관리

**인문계열 모집반**  
• 서울대+경찰대반(소수정원제)  
• 교육대+연고대+사관학교반  
• 전남대반

**자연계열 모집반**  
• 의치한대의대반(소수정원제)  
• 교육대+연고대+사관학교반  
• 전남대반

(월 수강료:47만5천원(통일 10교시+토요일5교시 월 26일 수업))

**개강**  
2월반 2월16일(월)  
3월반 3월 3일(화)

★ 명예로운 학생 ★  
• 재수생 전제수석 인문계 표준점수 718점 박 00군 획득  
• 광주 일등학원 자연계 신동일 군 (연세대 치대합격(20명 모집)/강릉대치대/단국대 치대 합격)

www.kjildeung.com

찾아오시는 길 : 전남여고 후문과 동부경찰서 사이  
NAVER | 광주일등학원 | 검색!

(062)227~2588(대)

광주 일등학원  
227-2588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5년 전통 •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강"  
전원 서울에서 출강!

주택관리사 "2009년 9월 20일 시험"  
대 개강 2월 2일

대 개강 2월 2일  
2개월 완성

광주고시학원  
직접인용 위변 고충보험 환급과제  
국비지원 개강반 대강  
반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합판 ☎ 971-0002 광주은행 침탄정 4층

= 앞서가는 수험생들의 선택! "역시" 無等이었다. =

# 7.9 급 공무원 對備 전문

문제가 풀이반 4주 완성  
수시합수 국가+지방직  
소직렬이론반 (영어)10기가능직  
=속 지방직 채용인원=  
• 서울903, 부산236, 대구100, 인천393, 광주119  
• 대전105, 울산 86, 경기685, 강원160, 충북182  
• 충남198, 전북 206, 전남 308, 경북 214, 경남 316

개강  
매월1일과15일(주-아침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소방직 • 사상최다모집예정  
• 서울 300, 부산 82, 대구 94, 인천 277, 광주 92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8, 충북 113  
• 충남 188, 전북 120, 전남 280, 경북 128, 경남 110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